

202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데살로니가전후서  
메시지 8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랄 필요성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해야 할 필요성

성경: 살후 1:3, 히 11:1, 5-6

I.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여러분 각 사람의 사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했다(살후 1:3).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지닌,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뛰어난 미덕이다(딤후 1:14, 딤후 1:13, 갈 5:6).

- A. 믿음은 삼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감상하고 실질화하며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 히 11:1, 요 1:12, 엡 3:16-17 상.
1.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며,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얻게 된다 — 벧후 1:1.
  2.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 행 10:43, 요 3:16.
  3.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간다 — 요 3:15.
    - a. 우리는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 b. 우리는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통과하시고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과 동일시된다 — 고전 1:30, 엡 2:5-6, 골 3:1.
- B.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 내기 위한 것이다 — 막 12:30.
1.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단체적인 한 표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살아 낼 수 있다 — 엡 3:19-21.
  2. 사랑은 믿는 이들이 동료 믿는 이들에게 삼일 하나님을 공급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이는 신성하고 뛰어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 롬 12:4-5, 10.

II.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에 의해 자란다.

- A.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다.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고 말씀에는 세 방면이 있다.
1.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다 — 요 10:35, 5:39-40.
  2.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이다 — 요 1:1, 계 19:13.
  3. 하나님의 적용된 말씀은 그 영이다 — 엡 6:17, 요 6:63.
  4. 결론적으로 믿음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에 의해 적용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생기며 우리 안에서 자란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주관적인 하나님이다.
- B.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주목함으로 자란다 — 히 12:2.

1. ‘주목함시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모든 목표와 빛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믿으신다. 따라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다(갈 2:20, 롬 3:22, 비교 눅 10:38-42).
2.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근원이신 예수님은 또한 믿음의 인도자이시요, 개척자이시요, 선구자이시다. 우리가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길에서 믿음의 기원자이시고, 하늘에서의 영광 안에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시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습관적으로 주목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창시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하시고 넣어주신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마치고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히 12:1-2, 고후 4:13, 고전 9:24, 빌 3:14.

**III.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굳게 붙잡을 때(신 30:19-20)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하고, 주님께서 ‘숨겨두신 이들’인 우리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숨기시는 곳에 우리 자신을 숨긴다(시 83:3, 31:20, 사 45:15).**

- A.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 증가시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되도록 허락하여 그분을 향해 살아야 한다 — 렘 31:3, 유 19-21, 고후 5:14-15.
- B.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일 4:19),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요일 4:20-21).
- C. 우리 모두는 은밀하게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진으로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교통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실 수 있고,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 시 91:1, 아 1:1-4, 요 4:24, 눅 15:20, 마 6:6, 5:15-16.

**IV.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다’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 히 11:5-6, 1-2, 고후 4:13, 16-18.**

- A.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히 11:6 상.
- B.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 요 8:58, 전 1:2.
- C.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반드시 홀로 유일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창 5:24, 히 11:5.
- D.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이다’이시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다 — 눅 9:23.
- E. 나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셔야 한다. 곧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 갈 2:20.
- F.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다(히 11:5-6). 에녹은 삼백 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다’이신 것을 믿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고 더욱 하나가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창 5:22-24).

**V.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다.**

- A. 냉철한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에 있어서가 아니라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양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라는지에 달려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랐던 것처럼 자란다면, 우리가 받는 믿음의 몫은 아주 커질 것이다.

- B. 하나님은 먼저 질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고, 그다음으로 양에 있어서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시는 것에 달려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에 달려 있다.
- C.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냉철한 생각이 없다면(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많이 나누어 주시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줄어들게 하실 수도 있다 — 빌 2:2-3, 갈 6:3, 고전 8:1-3, 비교 눅 1:53, 마 5:3.

**VI.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 하-13:8 상.**

- A. 바울이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묘사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고전 13:4-8 상).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생명이 없이 소리만 내는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과 같게 된다(고전 13:1, 14:1, 3, 4 하, 12, 31, 고후 3:6).
- B.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 있으며, 가장 큰 것이다 — 고전 13:4-8, 13.
- C.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랑해야 한다(마 5:43-48).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가장 먼저 구원하신 사람은 신사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인 강도였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마 27:38, 눅 23:42-43).
- D.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롬 8:2, 갈 6:2-3).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요 21:15-17, 눅 15:3-7).
- E.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사랑의 수고이다(고전 15:58, 살전 1:3).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행 20:35)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준다’(살전 5:14).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14:1, 15:1).
- F.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며(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 상),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 G.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을 정복하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 딤후 1:7.
- H.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 첫째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 골 1:18, 계 2:4.
- I.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 — 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 — 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 고전 2:9 각주 1.

**VII.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또한 삼일 하나님의 이 지극히 탁월한 사랑으로 그분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교회 타락의 흐름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얻기를 갈망하시는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다.**